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時相은 모두 發話時 이후이며 主體는 2人稱 (11), 3人稱(9,10) 내지 그와 가까운 것(12)으로 볼 수 있다.

推測法(2)에 나타나는 “-뫼(-뫼)-”의 意味는 不定法(1)의 “-뫼-”과 비슷하다. “-뫼-”은 그것이 缺如된 “하리라, 하려, 하리니”와의 비교에 依支해서 파악되어야 하고 “-오-”이 插入된 推測法(1)의 語形과도 관련시킬 필요가 있다.

(13) “魔鬼둘허 다 물러 호터 가리이다”(月釋 21:126b)

(14) “이 世界^들허 어루 사랑^하야 그 數를 알려 물^하려”(月釋 17:5a)

(15) “네 오는 뒤에 佛事^를 마^장하리니 나 滅度^후에 내 弟子^를 너를 마씨노라”(釋詳 11:14a)

用例(13)은 主命이라는 鬼王이 세존에게 하는 말로서 用例(3)과 比較될 수 있다. 後者는 父王의 行爲를 肯定的으로 받아 들이면서 그것을 推測·確認하고 있다. “어루” 등의 樣態副詞가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13)은 텍스트上으로 볼 때 화자의 樣態的 態度 같은 것이 읽혀지지 않는다. 단순한 推定이 아닌가 한다. 用例(14)는 세존이 善男子에게 하는 말인데 (7)(8)과 比較될 수 있다. 같은 動詞에 “-뫼-” 插入形과 缺如形이 交替·統合된 例다. 統合與否가 統辭構造에 미치는 影響은 전혀 없다. 그런데 (14)에 대한 答변은 다음과 같다.

(16) “...世尊^하 이 곤^한 世界^들허 無量無邊^하도소이다”(月釋 17:5b)

“하도소이다”로 끝나 있다는 것은 (14)도 (7)(8)과 같이 “알리로소녀, 물^하리로소녀”로도 나타날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는 화자에게 매어 있다. 語調 등 다른 方法에 의해 화자의 樣態的 態度가 表示되었기 때문에 答변에서 “-뫼-”이 插入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화자는 意圖의 介入없이 물었는데 청자는 그것을 介入시켰다고도 解釋할 수 있다. 用例(15)는 世尊이 金像에게 하는 말로 (9)~(12)의 比較對象이 된다. 전자는 화자가 주체의 未來의 行爲를 凡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뫼-”이 缺如되었으나 後者는 話者의 樣態的 態度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틀림없이”와 같은 樣態副詞의 補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論議에 立脚할때 推測法(2)는 推測法(1)로 바꾸어도 意味의 變質을 가져 오지 않는다. 後者의 例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두 推測法의 가치의 同質性과 직접 관계가 있다(後述).

“하리로다”에 “-오/우-”가 統合된 “*하리로소라”의 形式을 檢討해 보자. “-오/우-” 統合形은 חס^示體인 “하리로소이다”와, חס^示體인 “하리로청다”만 보인다.³⁶⁾

36) “-오/우-”가 統合된 “하리로다”의 哈拉體는 “*하리로소라”로 假定한 바 있는데 (§4.1.1.), 이 語形은 실지로 나타나는 일이 없고 第一人稱과 呼應하는 “하리로다”의 語形만 보인다.

내 바^르 알리로다(林初上:14b)

哈拉體에서는 “*하리로소라”와 “하리로다”가 形態上的 合流를 경험했는지도 알 수 없으나 “하리로다”는 일단 “-오/우-”가 統合되지 않은 形式으로 다룬다.

(17) “(어머니를) 地獄에도 묻 보수불리로소이다”(月釋 23:81b)

(18) “나는…바리 알풀씨 길흔 물너리로소이다 이 짜히 어드메잇고”(月釋 8:94a)

用例(17)은 지옥에서 어머니를 찾아헤매며 부르짖는 말로서 거의 獨白에 가깝다. (18)은 一方的 陳述에 가깝다. 원앙부인이 왕과 함께 梵摩羅國 林淨寺로 가는 도중에 比丘에게 하는 말이다. 時相은, (17)은 發話時 이후이고, (18)은 發話時와 일치한다. 앞서 든 “*하리로소라”의 ㅎ야씨體 用例(7)(§4.1.1.)을 다시 取해 보기로 하자.

(19) “어제 그딛 마물 드로니 믈수매 來往하야 너디 물하리로소이다”(口訣文省略)(內訓 2下:37a)

이 用例는 ㅎ야씨體다. 主體가 화자로서 “-오/우-”의 統合形으로 간주된다. “-못-”(뎡)에는 回想의 意味가 파악된다. “-뎡-”이 單獨으로 쓰였을 때 回想의 用法이 있었음과 有關하다(§4.2.7.의 用例 (7) 참조). 위의 用例의 事件時는 經驗時와 일치한다. “하리로다”의 “-오/우-” 統合形은 “-못-(뎡)”이 缺如된 “*하리오이다, *하리왕다”와의 比較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우-”가 “-(으)리-”에 先行하므로 “호리라, *호링다, 호리이다”와의 비교에 依存해야 한다. 구체적인 引例 없이도 意味 파악이 가능하다. (17)(18)에는 情感性이, (19)에는 樣態性이 각각 파악된다. 前者에는 “유감스럽게도, 슬프게도” 등의 부사를, 後者에는 “정말” 등의 부사를 각각 補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0. 필자는 지금까지 感動法과 관련된 形態素들을 確認하고 이를 바탕으로 使用上の 制約과 時相을 살펴보고 意味上的 特性을 話者의 사태에 대한 態도와 관련시키면서 究明해 보았다. 圖表 1(§4.1.3.)을 意味上的 共通性에 따라 다시 調整함으로써 要點을 整理하고 感動法에 관련된 既往의 意見들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4.3.1. 필자의 檢討 結果에 의하면 不定法(1)과 (2), 推測法 (1)과 (2)는 서로 統合될 수 있다. 使用面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時相에 있어서도 共通性을 띠고 있으며 意味上으로도 差異點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不定法과 推測法의 두가지 형태는 수의적인 形態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를 口訣文과 翻譯文과의 關係에서 밝혀 보려고 한다.

앞에서 우리는 “-(으)샏-”이 당시의 言衆에게 “-(으)샤-”와 “-웃-”의 統合體로보다는 오히려 한 單位로 認識되었음직한 論議를 본 일이 있다(§4.1.1.). 15世紀의 言語資料의 대부분은 口訣文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에 맞추어 한글 번역이 이루어졌으리라는 所論이 있다.³⁷⁾ 이에 의하면 당시 하나의 單位로 굳어진 “-(으)샏-”이 번역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점은 口訣文의 절대적 영향과 관련된다. “-(으)샏-”으로 나타난 口訣文이 번역문에 그대로 反映된 不定法(1)의 用例(1)(3)(5)(§4.2.1.)과 推測法(1)의 用例 (1)(2)(§4.2.3.)가 그것이다.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에 나타나는 “-(으)샏-” 用例도 口訣文이나 다른 사정의 영향을 받았을

37) 安秉禧(1965b:66)에 疑問法語尾를 中心으로 口訣文이 번역문에 미친 영향이 지적되어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³⁸⁾ 그러나 推測法(2)의 用例(3)은 사정이 다르다. 口訣文에는 “-(으)ㅅ-”인데 번역문에는 “-ㅅ-”이 選擇되어 있다. 이는 譯者가 口訣文에 구이되지 않고 당시의 口語를 反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⁹⁾ 中世語의 자료상의 特異性에 비추어 볼 때 不定法과 推測法의 두 형태의 統合·叙述이 合理化될 수 있음을 確認하였다.

앞서 提示했던 圖表 1을 實在形을 中心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示는 隨意的 交替를 意味한다.

구분 語末語尾 叙法	“ㅅ, ㅆ, ㅈ” 形態				“ㅅ, ㅆ, ㅈ”과 “-오/우-” 統合形態		
	說明法	疑問法	命令法	接續	說明法	疑問法	接續
不定法	ㅎㅅㅅㅅ다, ㅎㅅㅅㅅ이다 ¹ / ㅎㅅㅅㅅ다, ㅎㅅㅅㅅ이다 ¹	ㅎㅅㅅㅅ너	ㅎㅅㅅㅅ라	ㅎㅅㅅㅅ너	ㅎㅅㅅㅅ라 ㅎㅅㅅㅅ이 다 ² / ㅎㅅㅅㅅ이다 ²	ㅎㅅㅅㅅ다	ㅎㅅㅅㅅ너
直說法	ㅎㅅㅅㅅ다, ㅎㅅㅅㅅ이다			ㅎㅅㅅㅅ 너 ¹	ㅎㅅㅅㅅ라	ㅎㅅㅅㅅ다	ㅎㅅㅅㅅ너 ²
推測法	ㅎ리ㅅㅅㅅ다, ㅎ리ㅅㅅㅅ이 다 ¹ / ㅎ리ㅅㅅㅅ다, ㅎ리ㅅ ㅅㅅㅅ이다 ¹	ㅎ리ㅅㅅㅅ너 ㅎ리ㅅㅅㅅ너 있 가		ㅎ리ㅅㅅ 너	ㅎ리ㅅㅅㅅ 다 ㅎ리ㅅㅅㅅ이 다 ²		
回想法	ㅎㅅㅅㅅ다, ㅎㅅㅅㅅ이다				ㅎㅅㅅㅅ라		ㅎㅅㅅㅅ너
推測回想法	ㅎ리ㅅㅅㅅ 다						
確認法					ㅎㅅㅅㅅ라		

圖表 2

1. 感動法의 形態素는 “-ㅅ//ㅆ-”과 그리고 “-ㅈ-”이 있다. 前者의 두 형태는 隨意的 交替關係에 있다. “-ㅅ-”이 保守性이 짙은 文語體의 형태라면 “-ㅆ-”은 口語的 特性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ㅈ-”은 “-ㅆ-”과 수의적 交替關係에 서는 일도 없지 않으나 “-오/우-”가 統合된 설명법에 局限되어 있다. 따라서 “ㅎㅅㅅㅅ라, ㅎㅅㅅㅅ다, ㅎㅅㅅㅅ너, ㅎㅅㅅㅅ다”에 나타나는 “-ㅈ-”은 “-ㅅ//ㅆ-”과 형태론적으로 제약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感動法은 單獨的 場面과 一方的 通報 功能이 우세한 相關的 場面에서 많이 나타난다.

3. 感動法의 事件時는 不定法의 경우는 統合用言의 動作類의 特性에 따라 決定되고 다른 叙法에서는 그것의 時相上의 特性에 依存한다.

4. 感動法은 說明法에서 主體가 非1人稱일 때는 情感性이 우세하며 1人稱일 때는 樣態性이 우세하다. 그밖의 환경에서는 樣態性이 絶대적이다. 感動法 形態素는 화자가 사태를 情感的으로나 樣態的으로 파악할 때 쓰인다고 말할 수 있다.

4.3.2. 필자가 確認한 一群의 形態素를 包含한 語形에 대하여 처음으로 文法的 意味를 부여한 것은 李崇寧(1961)이다. 그는 “-ㅅ-, -ㅆ-, -ㅈ-”이 插入된 語形과 話者 標識의 先

38) 不定法(1)의 用例 (2)(4)(6) (§4.2.1.) 참조

39) 口訣文의 “-도다”가 번역문에서 “-ㅅ다”로 바뀐 例文이 있는데 이는 理解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直說法의 用例 (1)(3)(7)(8) 참조 (§4.2.2.).

語末語尾 “-오/우-”가 介在된 語形을 통틀어라서 「感想法」이 부르고,

話者が 어느 客觀的 事實에 主觀的으로 價値를 매겨 表現하는 叙法(李崇寧 1961:182)

이라 규정하면서 叙法의 一種으로 간주하였다. 劉昌惇(1964a:305-334)은 우리의 感動法 形態素가 포함된 語形들을 確認形, 感嘆形, 強調形으로 불려, 感嘆의 意味 이의 確認·強調의 기능이 있음도 언급하였다.

이상 두 文法家의 종합적 意味 파악에 대해서 形態論的 배려 밑에 單位를 識別하고 意味를 부여한 것은 安秉禧(1967)이다. 그에 의하여 “-웃-, -똥-, -스-”이 처음으로 分離되었다. 그는 說明法에 나타나는 語形만을 論議의 對象으로 하여 李崇寧(1961)의 感想法의 體系를 어느 정도 確立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허웅(1975:923)은 방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종전에 일부에서 強調의 意味를 賦與해 왔던 필자의 確認法 形態素 “-거/어-”(§3.1.1.)와, 필자의 感動法 “-웃-//똥-, -스-”이 插入된 “-도-, -노-, -다-, -샤-, -소-, -스-”을 대상으로 「강조·영탄법」이라 부르고 다음과 같이 그 意味를 규정하였다.

말의 표현을 힘주어 하려거나, 말의 어조를 나채롭게 하려거나 또는 말에 어떠한 경서를 부여하려 할 때 쓰이는 여러가지의 안팎음씨끝이 있는데, 이 씨끝들이 나타내는 문법적인 뜻은 꽤 나채로와서 한말로 그 뜻을 표현하기 어려우나 여기에서는 「강조·영탄법」이란 이름으로 뭉쳐 두기로 한다(방정—원문대로)

精密한 形態素의 分析이 전체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李崇寧(1961a)나 劉昌惇(1964a)와 큰 차이가 없으며, 確認法의 “-거/어-”를 感動法과 統合·叙述한 것은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나 한다. 그러나 意味의 규정에 있어서는 이전의 文法家들보다 깊이를 더하고 있다.

우리가 確立한 “-똥-”에 대한 색다른 견해가 있다. 李男德(1971)은 “-도다”의 “-도-”를 話者 標識의 先語末語尾 “-오/우-”의 形態論的 異形態라 간주하고 兩者를 「情動法」이란 보다 包括的 범주에 소속시켰다. “-오/우-”系列은 主觀情動法, “-똥-”系列은 客觀情動法이라 하였다. 그의 情動法體系는 意味 파악에 있어서는 이전의 文法家들이 미치지 못한 재미 있는 사실을 많이 찾아내었으나 정밀한 形態素 分析의 바탕위에 서지 못했다. “-도-”가 “-오/우-”의 異形態가 되려면 制約條件만 다르고 意味는 같아야 할터인데 主觀과 客觀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다른 形態素임을 暗示한다. 意味 파악에 있어 구조적 뒷받침이 缺如된 것이 아닌가 한다.

종전의 「感想法」 내지 「강조·영탄법」은 어떤 意味에서는 妥當한 名稱이라 할 수 있다. 說明法에서 主體가 非1人稱일 때는 情感의 用法이 우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情感性과 樣態性이 다같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前者에 置重하여 感動法이라 부르고자 한다. 感嘆法이라 하지 않는 것은 語末語尾에 依存하는 現代語의 感嘆法語尾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先語末語尾에 依存하는 中世語의 구조적 양상을 尊重한 所致인 것이다.

4.3.3. 說明法뿐 아니라 疑問法, 命令法, 接續의 連結語尾에 두루 나타나는 中世語의 感動法 體系가 語末語尾에 依存하는 文體法으로서의 感嘆法 語尾로 변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또 中世語에는 우리가 確認한 感動法 이의 一聯의 感嘆法 語尾가 있다(허웅 1975:930-1). 이들 語尾와 우리의 感動法이 갖는 相關關係는 이곳에서 다루지 않는다.

V. 總 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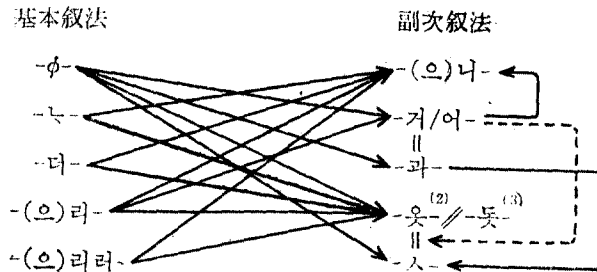
——樣態·情感의 叙法——

5.0. 종전의 中世語의 文法研究에서 漠然히 「확정법」 내지 「定立法」 「強調」 내지 「完了」 「感想法」 내지 「강조·영탄법」으로 불러오던 一聯의 語形을 現代語에 관한 知識을 발판으로 하여 形態論의 配慮를 深化시키고 使用面의 制約과 意味上의 特殊性을 究明하여 보았다. 原則法,, 確認法, 感動法이란 이름 아래 고찰해 왔던 先語末語尾 “-(으)니-”, “-거/어-”, “-웃-// -똥-”, “-入-”의 構造的 樣相과 意味上의 特殊性을 總括하여 中世語의 樣態·情感의 叙法範疇를 體系化해 보려 한다.

5.1.

(1) 構造的 共通性

原則法, 確認法, 感動法은 不定法,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과 같이 時相과 깊은 關聯을 맺고 있는 基本叙法範疇를 바탕으로 形成된다. 細說하면 原則法은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推測回想法과 確認法을, 確認法은 不定法과 推測法을, 感動法은 不定法,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推測回想法과 確認法을 土臺로 하고 있다. 留意할 것은 原則法과 感動法이 確認法을 바탕으로 成立되는 일이다. 話者의 態도와 관련시켜 해석해 온 原則法, 確認法, 感動法을 副次叙法으로 불러 基本叙法과의 統合樣相을 圖式化한다. 不定法은 편의상 ϕ로 表示한다. 화살표로써 統合方向을 지시하기로 한다.



1) 點線은 杜詩諺解 卷21에 나타나는 “-것다”를 가리킨다(§3.3.3 참조).

2) “-(으)리-”와 “-웃-// -똥-”의 統合은 “하리로다”를 가리킨다(§4.1.1).

3) “-(으)리러-”와 “-웃-// -똥-”의 統合은 “하리랴다”를 가리킨다(§4.1.1).

(2) 意味上の 共通性

副次的 叙法 形態素들이 나타나는 텍스트는 대체로 一方的 特性이 강한 通報行爲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一方的 特性은 이들 形態素들의 意味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들이 缺如되면 兩方的 通報行爲의 特性을 띠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副次的 叙法 形態素들이 表示하는 意味는 時相과는 無關하고 오히려 화자의 사태에 대한 態度를 反映하는 것으로 보았다. 原則法과 確認法에서는 樣態性을 읽을 수 있고 感動法에서는 情感性을 支配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感動法에서 본 바와 같이 情感性과 樣態性은 交錯되는 側面이 많았고 非終結語尾에서는 樣態의인 意味가 거의 絶對적이어서 確認法 形態素가 表示하는 意味와 差異點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는 樣態性을 表示하는 原則法, 確認法과 情感性을 表示하는 感動法을 하나로 묶게 하는 意味上的 特殊性이 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先語末語尾라는 構造的 共通性和 이곳의 意味上的 特殊性에 立脚하여 強調法으로 처리한다. 現代語의 強調法은 原則法과 確認法밖에 없는데(高永根 1965:§3.6.2.), 中世語는 感動法이 추가되어 셋이었음을 確認할 수 있다.

5.2. 필자가 中世語의 樣態·情感의 叙法 곧 強調法을 體系化하면서 부딪친 가장 어려웠던 점은 意味把握의 方法이었다.

強調法의 形態素가 插入된 텍스트는 그것이 缺如된 텍스트와 比較하는 方式을 주로 擇했다. 이른바 統合的 關聯性의 解明에 重點을 두었다. 이에 앞서 그 텍스트가 나타나는 場面の 특수성도 깊이 고려하였다. 이것만으로는 意味의 客觀的 叙述이 어려워 그 텍스트의 앞뒤의 意味를 파악하여 樣態性和 情感性에 관련되는 副詞를 補完하는 方式을 採擇하였다. 곧 強調法 形態素가 使用된 텍스트에는 樣態 및 情感副詞의 插入이 자연스러운 이유를 찾으려 하였고, 그것이 缺如된 텍스트에는 그러한 부사의 插入이 부자연스럽거나 어려운 緣由를 개어 보았다.

5.3. 原則法, 確認法, 感動法을 包括하고 있었던 中世語의 樣態·情感의 叙法 範疇 곧 強調法이 原則法, 確認法을 包括하는 現代語의 體系로 변모하는 과정은 다루지 않는다. 이 문제는 原則法, 確認法, 感動法의 변천 모습이 밝혀진 뒤에야 어느 정도 完壁한 叙述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高永根(1965), 現代國語의 叙法體系에 對한 研究 —先語末語尾의 것을 中心으로—, 國語研究 15
- (1974),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대한 構造的 研究, 語學研究 10-1
- (1975), 現代國語의 語末語尾에 대한 構造的 研究 —非終結語尾의 것을 中心으로—,

應用言語學 7-1

- (1976), 現代國語의 文體法에 대한 研究 —叙法體系(續)—, 語學研究 12-1
- (1978), 形態素의 分析限界, 언어학 3
- (1980), 中世語의 語尾活用に 나타나는 “거/어”의 交替에 대하여, 國語學 9
- 金忠會(1972), 十五世紀 國語의 叙法體系試論, 國文學論集 5•6 (檀國大學校)
- 나진석(1971), 우리말의 매매김 연구, 과학사
- 南廣祐(1975), 古語辭典補訂, 東亞出版社
- 朴炳采(1968), 高麗歌謠語釋研究, 宣明文化社
- 安秉禧(1963), 「즈가」語攷, 국어국문학 26
- (1965a), 十五世紀國語의 共通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8.
- (1965b),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 6 (建國大學校學術研究院)
- (1967), 韓國語發達史 “文法史”, 言語文學史 V,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 梁柱東(1947),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 李基文(1972), 改訂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Lee, Ki-Moon (1977), Geschichte der koreanischen Sprache/dt. Übers. hrsg. von Bruno Lewin, Wiesbaden: Reichert.
- 李男德(1971), 十五世紀 國語의 情動法研究, 문교부연구보고서, 어문학계 6
- 李丙疇(1970), 杜詩諺解批注, 通文館
- 李承旭(1967), 15世紀 國語의 先語末接尾辭 <-가/거->, 國文學論文集 1 (檀國大學校)
- (1973),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 一潮閣
- 李崇寧(1961a),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 (1961b), 「샷다」考, 震檀學報 22
- (1966), 國語學論叢, 東亞出版社
- (1972), 國語學研究, 螢雪出版社
- 李仁模(1976), 古典國語의 研究(增補改訂版), 宣明文化社
- 유창돈(1963), 선행어미 -가/거-, -아/어-, -나- 고찰, 한글 132
- (1964), 李朝國語史研究, 宣明文化社
- 崔泰榮(1965), 中世國語의 prefinal ending [-거-]에 관한 研究, 國語研究 17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사
- 허 응(1955), 용비어천가, 정음사
- (1958), 插入母音攷, 論文集(人文社會科學) 7(서울大學校)
- (1962), 또다시 人稱·對象活用語尾에 對하여, 語文學 10
- (1963), 中世國語研究, 정음사

——(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河野六郎(1950), On the Intensive Stem of Middle Korean, 言語研究 16(日本言語學會)

油谷幸利(1978), 現代韓國語의 動詞分類, 朝鮮學報 87

Helbig, G. & J. Buscha (1975), Deutsche Grammatik, Leipzig: VEB Verlag Enzyklopädie

«Zusammenfassung»

**Zur Modalität und Emotionalität in der Verbalflexion
im Mittelkoreanischen**

Yong-Kun Ko

1. In dieser Untersuchung beschäftige ich mich mit der Identifizierung der modalität- und emotionalitätsbezogenen, präfinalen Endungen sowie mit der Auffassung ihrer semantischen Eigenschaft. Die Modi, die sich auf die Modalität und Emotionalität beziehen, sind die folgenden: Apodiktiv, Assertiv und Exklamativ.

2. Der Apodiktiv *ni* wird nur in dem Deklarativ identifiziert. Obwohl man auch die ähnlichen Formen in dem Interrogativ und der attributiven Form findet, ist es kein Apodiktiv hinsichtlich des strukturellen und semantischen Aspekts. Die apodiktive Form steht nach dem Indikativ, Retrospektiv, Präsumptiv und Assertiv. Die kommunikative Funktion der Texte, in denen der Apodiktiv realisiert wird, ist in der Regel einseitig. Das Tempus des Apodiktivs hängt von vorangehenden tempusbezogenen Modi ab, z.B. dem Indikativ, Retrospektiv und Präsumptiv. Der apodiktive Ausdruck wird da verwendet, wo der Sprechende die Sachverhalte allgemeingültig bzw. entscheidend einschätzt und dann den Hörer darauf konzentrieren läßt. Deshalb in den apodiktiven Sätzen dürfen die bestätigung- bzw. verstärkungbezogenen, sogenannten modalen Adverbien wie *bestimmt*, *natürlich* usw. mitverwendet werden.

3. Der Assertiv *kō* und *ō*, die auch das morphologische Merkmal der Verba besitzen, werden in Deklarativ, Interrogativ, Imperativ, konjunkionaler und attributiver Form identifiziert. Die Endungen mit Formen *kō/ō* in den übrigen Umgebungen dürfen nicht als Apodiktiv angesehen werden; denn sie enthalten keine entsprechenden Formen hinsichtlich der syntagmatischen sowie paradigmatischen Relationen. Die kommunikative Funktion des Assertivs ist beinahe einseitig im Vergleich zum Apodiktiv. Sein Tempus hängt von der Aktionsart des Verbs ab. Wenn er mit dem Präsumptiv *li* kombiniert wird, wird sein Tempus mit diesem Ausdruck bezeichnet. Die semantische Eigenschaft muß sich auf die Einschätzung des Sprechenden zum Aussagen beziehen. Der Assertiv wird meistens dafür benutzt, wo der Sprechende die Sachverhalte entscheidend bzw. bestimmt einschätzen und dann sich vergewissern will. Daher kann man in solchen

Texten die einschätzungbezogenen Adverbien wie *freilich*, *allerdings* anwenden.

4. Exklamativ

Die exklamativen Formen im Mittelkoreanischen sind wesentlich komplizierter als die der Gegenwartssprache. Die exklamativen Ausdrücke, die man durch die Identifizierung des Morphems bekommen kann, sind wie die Formen *os//tos*, s. Die Formen *os* und *tos* wechseln einander fakultativ ohne großen Unterschied der Bedeutung ab. Die erstere ist ein bißchen veralteter als die letztere. Da die Form *s* in einigen, bestimmten Umgebungen realisiert wird, kann man sagen, daß sie gegenüber den Formen *os* und *tos* morphologisch bedingt wird. Die exklamativen Formen werden in Deklarativ, Interrogativ, Imperativ und konjunkionalen Endungen representiert. Diese Formen stehen sowohl nach Indikativ, Retrospektiv, Präsuntiv-Retrospektiv wie direkt nach dem Stamm. Die kommunikative Funktion des Exklamativs ist ziemlich einseitig wie der Assertiv. Dieser Aspekt wird deutlich in den Sätzen ausgedrückt, in denen keine erste Person als Subjekt auftritt. Das Tempus hängt von den vorangehenden, tempusbezogenen Modusausdrücken und der Aktionsart des Verbalstamms ab. In den exklamativen Ausdrücken sind Emotionalität und Modalität enthalten: die Emotionalität wird hauptsächlich in den deklarativen Sätzen ausgedrückt, deren Subjekt keine erste Person ist; die Modalität erscheint meistens in den übrigen Umgebungen. Unter Umständen ist es schwer, die Grenze zwischen die Modalität und Emotionalität zu ziehen. Während sich die Texte mit der Emotionalität mit emotionbezogenen Adverbien wie *erstaunlicherweise*, *bedauerlicherweise* usw. sehr natürlich vertragen, verbinden sich die Texte mit Modalität mit den modalen Adverbien wie in dem Assertiv.

5. Drei Modi, die oben als Apodiktiv, Assertiv und Exklamativ genannt wurden, haben die gemeinsamen Eigentümlichkeiten hinsichtlich des strukturalen, semantischen und pragmatischen Aspekts.

1. Struktural kommen sie grundsätzlich nach den tempusbezogenen Modi;
2. Semantisch drücken sie die Modalität und Emotionalität des Sprechenden zum Aussagen bzw. Geschehen aus;
3. Pragmatisch erscheinen sie in der einseitigen Kommunikation.

Auf Grund der obengenannten drei Punkte fasse ich drei Modiformen unter dem **I n t e n s i v e n M o d u s** zusammen.